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역설의 미학, 홍어

목포종합수산시장 초입에는 전국 각지로 홍어 택배를 보내는 전문점이 즐비하다. 택배 박스에 홍어를 담기 위해 썰고 있는 아주머니 옆에서 삭힌 홍어 두어 점 얻어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맛있는 홍엇집을 찾겠다고 왜 그런 수고를 했는지 허무해진다. 모름지기 음식은 많이 먹어 본 사람들이 잘 만든다. 홍어 삭히는 솜씨로는 목포 사람들의 감각을 따를 수 없다. 그렇게 곰삭은 내음을 따라 목포 홍어 기행을 다니다 보면 두 편의 시가 생각난다.

경상도 출신 정일근 시인이 쓴 '홍어'는 이렇게 시작한다. "먹고사는 일이 힘들어 질 때/ 푹 삭힌 홍어를 먹고 싶다/ 값비싼 흑산 홍어가 아니면 어떠리/ 그냥 잘 삭힌 홍어를 먹고 싶다/ 신김치에 홍어 한 점 싸서 먹으면 지린 내음에 입안이 얼얼해지고/ 콧구멍 뻥뻥 뚫리는 즐거움을/ 나 혼자서라도 즐기고 싶다"

한편 전라도 출신 손택수 시인이 쓴 '홍어'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요즘도 나는 어쩌다 그 홍어란 놈이 생각나는 것이다/ 세상에 나서 처음 먹는 음식인데/ 언젠가 맛본 기억이 나고/ 무슨 곡절인지 울컥 서러움이 치솟으면/ 어머니 배 속에 있던 열 달이 생각나곤 하는 것이다"

같은 음식인데 누구는 '먹고사는 일이 힘들어 질 때' 생각난다 하고, 누구는 '어머니 배 속에 있던 열 달'이 생각나는 음식이라 한다. 홍어는 그만큼 서사적이고 스펙타클한 음식이다.

홍어 이야기를 조금 뜬금없는 관점에서 해 보기로 하자. 포도는 80% 이상이 수분이다. 따라서 단맛과 향이 강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분을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이유로 세 가지 독특한 와인 제조 방식이 있다. 수확한 포도를 햇볕에 말려 건포도로 만든 다음 와인을 제조하는데 이를 '아마로네'라고 한다. 수확 시기를 일부러 늦추면 낮은 온도에 포도가 얼게 되는데, 이때를 맞춰 과즙만 짜서 만든 것을 '아이스와인'이라고 한다. 잘 익은 포도에 보트리티스 시네리아(Botrytis Cinerea)라는 하얀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곰팡이는 포도알의 수분을 빼앗아 버린다. 이런 곰팡이가 핀 포도만 따서 만든 것을 '귀부와인'이라고 한다.

이때 귀부(貴腐)란 '고귀한 부패'를 뜻하는 영어 단어(noble rot)를 직역해 일본인들이 만든 단어다. 만인은 평등하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지만, 부패에는 엄연한 등급이 존재한다. 썩어서 못 먹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썩었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증명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 쏘떼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샤또디껨'이라는 귀부와인은 세계 최고 와인으로 손꼽힐 정도다. 귀부라는 단어 자체도 모순이거니와 부패해서 최고의 와인으로 환골탈태하는 과정 자체도 모순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삭힌 홍어 역시 만만찮다. 홍어는 껍질에 끈적끈적한 액체가 많이 묻어 있을수록 신선한 것으로 친다. 헌데 이 액체의 정체가 수상쩍다. 동물은 몸속 노폐물인 요소를 오줌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홍어는 특이하게 피부로 내보낸다. 그 요소가 발효하면 암모니아가 발생하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된다. 원래 암모니아는 독성을 지니므로 이건 발효가 아니라 부패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홍어의 경우는 오히려 인체에 유해한 세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홍어는 상온에서도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다. 유해한 암모니아 덕분에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특유의 냄새와 육질을 만들어 내니 이 또한 모순이다. 그래서 홍어를 두고 '역겨워야 완성되는 역설의 미각'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홍어·청국장·낫토·블루치즈 등 냄새가 고약한 발효 음식은 쉽게 친해지기 어렵지만, 일단 맛을 들이면 묘한 중독성이 있다. 고약하기로 따지자면 삭힌 홍어가 그중 제일이다. 따라서 중독성 또한 가장 강하다. 전라도의 잔치 음식이던 홍어는 이제 전국적으로 애호가를 거느린 음식이 되었다. 하지만 대단히 아쉽게도 국내에서 소비되는 홍어의 90% 이상은 수입된 것이다. 흑산도홍어는 귀한 물건이 되었고 그만큼 몸값도 올랐다.

국산이건 수입이건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홍어는 나주시와 목포시 등으로 모인다. 과거 흑산도 등지에서 잡힌 홍어는 영산강 뱃길을 따라 영산포에 닿았다. 5~6일의 여정을 거치는 동안 갓 잡은 홍어는 자연스레 삭힌 홍어가 되었다. 그 전통이 남아 지금도 이 지역에는 수백여 곳에 이르는 가공공장과 도소매점이 몰려 있다.

비록 스토리만 남았을지언정, 바로 그 스토리가 홍어 맛을 더욱 곰삭은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목포의 맛을 '역설의 미학'이라 정의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맛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당신은 안녕(安寧)하십니까?

임지현
첨단우리병원 원장

뒤돌아 볼 틈도 없이,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내면서 살다 보니 어느덧 필자도 불혹의 나이를 넘게 되었다. 길지도, 그렇지만 짧지도 않은 마흔을 넘기면서 이제 나머지 남은 절반의 일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끔 생각해 볼 여유도 갖는다. 너무 철학적인 그리고 뜬금없는 생각이지만, 정말 중요하고도 많은 현자들이 고민했던 질문, '우리네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사색해본다.

내가 소명으로 하는 일은 사람들을 만나서 불편함과 고통을 들어주고, 그것을 같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갓난 아이부터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까지,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끊임없는 신진대사가 진행되는 생물이기 때문에, 각각의 세포 주기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면서 수많은 변화를 나타낸다. 특히 발달과 성장이 이뤄지는 유아·청소년 시기에는 놀라운 자연 치유력과 회복력을 보이고, 슬픈 사실이지만 인생의 후반기에는 정반대로 무슨 치료를 하더라도 반응이 늦고 의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를 통틀어서 표현하면, 모든 지구상 생명체의 공통적인 반응은 결국 본인의 생명을 영원히 지속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세포 주기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생명을 계속 연장하려는 노력은 사실 안 되는 것을 해보려는 비현실적인 이상과 꿈에 가깝다.

언어를 배우면서 어렸을 때는 '안녕하세요'를 그냥 인사할 때 쓰는 말로 외우고 무의식적으로 썼다. 그런데 안녕(安寧: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하다)의 뜻을 생각해보면, 정말 이것이 왜 인사말로 쓰는지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느낌이 든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길을 지나가다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서도, 그리고 서로 헤어질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를 계속 줄기차게 사용한다.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검색어 1위가 뉴스에서도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이 되는 것처럼,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안녕'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운 귀납적 결론이다.

다시 생명체 이야기와 연결되는데, 의학적으로 '안녕'은 항상성(恒常性: 언제나 변하지 않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춘하추동에도 체온이 36.5도로 일정한 것처럼 항상성이란 외부의 환경이 계속 변화하지만,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명체 내부는 계속 유지되는 성질이다. 이렇게 항상 그대로 지속되면 편안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것이고, 외부의 변화가 있으면 생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극에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반응한다. 인생에서는 난관과 고통,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활동이 치료인 것 같다.

그런데 필자가 진료실에서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절대 진리는 결국 환자가 통증 없이 편안한 '안녕'이 임상적 치료의 목적과 목표이고, 이것이 인생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만나 뵐 때 더욱 느껴지는데, 고관대작이든 평범한 소시민이든, 현재 재산이 많든 적든지 각자의 조건들은 건강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다. 개개인의 행복에 가장 절대적인 필요 조건은 몸의 '안녕'이다. 그 무엇으로도 바꾸거나 살 수 없는 건강과 안녕은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

오늘도 아침에 잠을 깨면서 새날을 시작한다. 특별하게 좋은 일이나 축하할 일이 없더라도 안녕히 눈을 떠서 하루를 보낸다면 이게 행복한 일이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온전히 나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안녕히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오늘도 진료실에서 그리고 병실에서 아프신 환자분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분들이 '안녕'하시고 이를 통해 행복하시길 항상 기원 드린다.

기 고

세일즈맨의 모든 것

김경태
광주은행 부행장

샐러리맨과 세일즈맨. 철자 몇 개가 다른 이 단어에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고정된 보수(salary)를 받는 근로자를 샐러리맨이라고 하는 반면, 세일즈맨은 무언가를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돌아보면 광주은행에 입행해 지금까지 샐러리맨에 그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 같다. 고객에게 무엇이 됐든 진심을 담아 판매하는 세일즈맨이 되고자 했고, 세일즈맨 인생에 모든 열정을 쏟기도 했다.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공식 후원 은행으로서 대회의 홍보 업무를 돕다 보면 내게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해주는 세일즈맨을 만나게 된다. 한 자리에서 점심 식사를 네 번하기도 하는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시간을 달리 오는 고객 한 분 한 분의 걸음에 남몰래 소화제를 먹어 가며 배려와 감사를 표한다. 세계수영대회의 성공 개최가 우리 지역에 끼칠 긍정적 효과를 널리 파급시키려는 그의 노력은 감동적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을 팔기 위해 불철주야 서울을 왕복하며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회원들을 설득한 결과 드디어 지난 25일 은행연합회 등에서 20억 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하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취임 1주년을 맞는 이용섭 광주시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와 마케팅으로 눈코 뜰 새 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중국과 유럽 등 발 빠른 행보를 펼치며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그리고 있다.

특히 이용섭 시장의 '의향·예향·미향' 마케팅이 눈에 띈다. '다시 찾는 광주'를 목표로 대회 기간 중 광주 국악 상설 공연장에서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매일 선보이고, 광주의 먹거리를 소개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넥타이를 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아는 머리가 하얀 모 공무원은 학창 시절에도 안 쓴던 코피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하면서 쏟았다고 한다.

광주은행 또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며 대회 공식 후원 은행과 우리 지역 대표은행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열린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송종욱 은행장은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및 전체 은행장들에게 '수리 달이' 마스코트 인형을 전달하며 대회를 홍보하고, 입장권 구매를 부탁하며 시중은행의 관심도를 높이는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밖에도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대내외 홍보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지난 2월 25일 1억 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를 시작으로 4월 29일에는 2000만 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해 광주 북구 관내 사회 복지 시설에 지정 기탁했으며, 5월 27일에는 1000만 원 어치를 구매해 광주 동구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하는 등 총 1억 3000만 원 어치의 입장권을 구매했다.

또한 광주은행 전 지점 객장에 '수리 달이' 인형을 전시해 고객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오는 6월 30일까지 '수리 & 달이 인생샷 사진 콘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붐 업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대회 기간 동안에는 관람객을 위한 외화 환전 부스와 이동 점포를 운영하여 광주 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 분야에서 뛰어온 세일즈맨들의 열정이 하나 되어 이뤄낸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곧 그 문을 연다. 오는 7월 12일부터 31일간 펼쳐질 이번 대회는 194개국에서 8000여 명이 참가 등록을 마쳐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광주가 세계로 향하고, 세계인이 광주로 찾아오는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가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세일즈맨의 정성에 우리 지역민들의 염원까지 더해지면 성공적인 개최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社 說

경전선 송정~순천 간 전철화 사업 앞당겨야

어제 국회에서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전남 국회의원 19명이 참석했다. 광주 송정역 등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지난 2018년 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0.85라는 높은 비용편익분석(B/C) 값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이(0.011)로 종합 평가(AHP)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광주 송정~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은 지역의 첨예한 관심사다.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중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기 때문이다. 전남을 가로지르는 경전선 송정~순천 구간은 1930년 개통 이후 한 번도 개량되지 않아 단선인 데다 시속 50㎞ 가량의 '느림보 철도' 이다.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일제강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순천~삼랑진 구간(200여㎞)은 복선 전철화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어서 대조적이다.

전남도는 어제 토론회와 예비타당성 현장조사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경전선 송정~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또 남해안권 관광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

영호남을 이어 주는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첫 글자를 따서 명명했다. 일제강점기에 경전선이 식민지의 '수탈'에 목적을 두고 부설됐다면, 현재의 경전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영호남 교류 촉진'을 위해 전철화돼야 할 것이다. 다행히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 기회가 다시 한 번 주어졌다.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간 전철화 사업은 국토 균형 발전과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광주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공간으로

무등산에서 발원하여 도심을 관통하며 흐르는 광주천은 광주의 젖줄이다. 하지만 수량이 늘 부족해서 영산강과 주암댐 물을 끌어와 하루 9만t 이상을 흘려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수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370억 원을 투입해 광주천 환경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른바 '광주천 아리랑 문화 물길 조성 사업'이다. 우선 매일 1~2급수의 하천 유지용수 10만 9000t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4 수원지에서 하루 1만 6000t의 물을 끌어오고, 기존 영산강에서 가져오던 물도 정화 시설을 따로 설치해 광주천에 흘려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에 들어가는 예산만 260억 원이다.

아울러 생태 보존, 생태 체험, 생태 문화, 생태 휴양 등 4개의 테마 존(zone)을 조성해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시민들이 수시로 찾아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이 사업과는 별개로 2025년까지 국비 등 1315억 원을 투입, 오수관로 설치를 추진해 오염 물질도 차단할 방침이다.

광주천 정비 사업은 이번이 처음인 것은 아니다. 2004~2009년에도 환경부와 함께 690억 원을 투입해 광주천에 물을 끌어와 흘려 보내고, 친수 시설을 확충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없다면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공적 방식으로 수량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시의 지하수위를 높이고 빗물을 활용한 물 순환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천 정비는 인위적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성 회복과 생물 다양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제대로 된 해법일 것이다.

無等鼓

아파트와 양파

이제 막 서른 살이 된 그의 관심사는 온통 아파트다. 그에게 수천만 원을 손쉽게 벌어들일 수 있는 이 '돈놀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무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수준이고, 분양 정보를 건네주는 공인중계사들의 문자나 건설사 모델하우스 개소 뉴스만 바라본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상품 개발, 기술 혁신, 설비 투자 등은 뒤로 하고 땅에 눈독을 들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0대 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2007년 4억1000만 평에서 2017년 12억3000만 평으로, 가치는 213조 원에서 635조 원으로 불었다.

부동산 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不勞所得)이다.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고, 개발 가능성이 더해지면 가치는 천정부지가 된다. 196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땅값은 6702조 원 상승했다. 이중 상위 1%가 가치의 38.1%(2551조원), 상위 10%가 82.8%(5546조원)를 독점했다고 한다. 부동산을 갖는 자가 상위층이고, 투기는 그들의 습관이라는 의미다.

아파트나 토지에 자본이 매여 있고 온 국민이 이를 통해 돈 벌 궁리를 하다 보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최근 경제 성장세의 주춤거림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10년간 계속된 불로소득 장려 정책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동산 투입 자금의 절반만이라도 제조업·첨단산업 등에 투자한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노력 없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아무 해도 끼치지 않으며,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도 했다. 불경기를 우려해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주저하고 각종 개발로 얻어지는 이익이 극소수에게 집중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과감히 메스를 대야한다는 것을, 229년 전 타계한 경제학의 아버지 역시 이미 강조한 것이다.

양파·마늘 가격이 폭락했다.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헐값에 넘겨야 하는 농민들은 피눈물이 난다. 존중받아야 할 노동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방관하는 국가에서 '공정 경제'는 공염불일 뿐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